

100% 우리 자본기업 농협한삼인 증평 GMP공장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농협한삼인 증평공장을 찾아가는 길 옆 들녘에는 벌써 누렇게 벼들이 익어 가고 있다. 열마를 달려 공장에 들어서니, 한 무리의 사람들과 물건을 나르는 일손이 바쁘다. 견학하는 일행과 같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농협한삼인의 모태는 1996년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과거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홍삼 제조공장으로 설립했던 '고려인삼창'이다. 그 후 2000년에 농협중앙회로 통합됐다가 2002년에 농협중앙회 계열사로 출범했다. 이곳 증평에 700억 원을 투자해 부지 85,950㎡, 건물 26,446㎡ 규모의 현대식 홍삼 제조공장을 준공한 것이 2009년의 일이다. 농협한삼인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제조공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2010년부터 일주일에 10회 이상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농식품 파워 브랜드대전 대통령상 수상

우수한 인삼을 수확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농협한삼인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요소는 바로 토양이다. 인삼을 키우고, 생육하기에 적합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예정지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더욱이 농협한삼인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홍삼 제조법을 바탕으로 홍삼의 유효성분을 최대치로 담아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농협한삼인은 국내에 전국 7개 지사를 관할하고, 240여 개



소에 이르는 가맹점과 유명 백화점, 면세점, 일반 유통매장, 농협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등 전국 1천여 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33%에 달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2011년에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국내 홍삼업계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품 홍삼을 위한 노력은 직원 건강관리에서부터

건물 한 편에서 탁구 경기를 하는 직원들이 보인다. "우수한 공장시설 유지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최우선입니다. 한삼인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와 협약을 맺고,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검진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받을 수 있어 직원 건강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지요." 강향원 주임이 활기찬 어조로 말했다.

공정 경쟁을 추구하는 농협한삼인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수확 확보과정이나 제조공정과 시설 환경, 성분과 함량 등에서는 경쟁업체에 비해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순수 국내 자본 100% 기업인 농협한삼인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돌아오는 길 문득 되돌아 본 증평 공장 위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미니인터뷰

농협한삼인 이준태 대표이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겠다"

농협한삼인만의 기업문화는,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증평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찾아 정성을 전달했는가 하면, 또 박지성 선수와 우리 축구꿈나무들이 함께하는 축구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한삼인 제품이 우수한 이유는,

"당사는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홍삼가공 우수제조시설관리기준(GMP)을 갖추고 있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가공·포장·배송·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에 준한다. 생약재료 등 부자재도 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능 성분 양을 달리하여 단계별 시리즈 제품을 만들고, 제품별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홍삼의 배합량을 조절해 안전하고 다양하며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사업계획상 매출목표는 850억 원인데, 직원들의 뜻을 모아 의지목표를 1천억 원으로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가맹점 120개점 개설, 계통마트 200개 점 입점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홍삼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